

# 신안군 암태초 전교학생회, 한글 사랑으로 세상을 꿈꾸다

### ‘우리가 해보고 싶은 행사’로 한글날 행사 성료 행복한 학교 위해 다채로운 행사 계획 예정

신안군 암태초등학교가 지난 10월 8일 전교학생회 주관으로 한글사랑 행사를 진행하여 눈길을 끌었다. 암태초등학교는 ‘학교의 자율과 자치의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교학생회 주관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행사는 575돌을 맞은 한글날의 의미와 한글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한글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암태초등학교 전교학생회에서 직접 행사를 기획·운영하였다. 전교학생회의 시간에 10월 우행사(우리가 해보고 싶은 행사)로 한글날 행사 추진을 기획한 학생회에서는 한글날과 관련한 자료를 쉽게 정리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한글사랑 골든벨 퀴즈 행사에서는 학생회장의 훈민정음 서문 낭독을 시작으로 한글의 우수성과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 틀리기 쉬운 우리말 퀴즈 등을 맞히는 대회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한글사랑 골든벨 퀴즈 문제를 전교학생회 임원단이 직접 출제, 제작하는 노력으로 학생들이 한글날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쉽게 인지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

한편 각 학급에서는 한글 사랑 실천으로 훈민정음 서문 바르게 쓰기, 한글로 필통 디자인하기, 세종대왕 책 읽고 독후활동,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편지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글날 문예활동을 실시하며 자랑스러운 우리 글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번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한 전교학생회 회장 박○○은 “학생회의

에서 나온 의견을 직접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부족하고, 문제 출제도 어려워 많이 힘들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만든 행사를 추진하면서 많은 친구들과 담임선생님이 도움을 주셔서 고맙다. 무엇보다 교장 선생님의 전폭적인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행사를 함께 준비한 전교학생회 부회장 장○○은 “나 스스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세종대왕의 위대함과 한글의 소중함에 대해 많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서 의미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학생회 주관 행사를 적극 지원한 한정희 교장선생님도 “학생회에서 주체가 되어 한글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글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더욱 가치 있는 행사였다.”고 말했다.

한편 암태초 전교학생회는 학생들의 학교 발전에 대한 자율적인 의견 개진과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소극적인 참여가 대부분이던 예전과 달리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학



생회 행사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의 밝은모습을 위한 많은 의견을 나누는 모습에서 장차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해갈 주역들의 모습을 기대한다. 앞으로도 학교의 주체로서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 진행할 예정이다. 신안=이덕주 기자

## 영광교육청, R&E 창의융합 발표토론 프로그램 개강식



전라남도영광교육지원청은 지난 10월 8일 굴비골 영광시장 고객지원실에서 (면단위) 프로그램 참여 중2, 3을 대상으로 R&E 창의융합 발표토론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 개강식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시행에 따라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책임 및 평가 교수님, 대학생 멘토, 관내 멘티학생과 교육관계자 49명 이내 참석하여 진행하였다.

이번 개강식은 앞으로 3개월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참가자들의 관계형성을 통한 원활한 운영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창의융합적 사고와 미래 삶의 문제해결 역량을 기

르기 위한 자기주도적인 발표토론 학습으로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3인 1팀 구성으로 4개 영역(정치와 사회, 철학과 삶, 경제와 생활, 인간과 환경)에서 주제를 선택하고 대학교수와 멘토의 밀착 지도하에 발표문을 작성하고 영예별 발표토론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

프로그램의 총괄을 맡은 동신대학교 김춘식 교수는 “뉴 노멀시대 융합적 상상력과 창의력 향상은 필수이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더불어 살아갈 미래인재로서의 성장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프로그램 설명을 듣고 관계형성 활

### 중학교 2·3년 대상

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멘토선생님들을 직접 만나니 반갑고, 앞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춘곤 교육장은 “작은학교라는 공간적 제한을 뛰어넘어 멘토멘티를 뛰어넘는 네트워킹이 이미 시작되었고, 나아가 다음 세대를 아우르는 역량이 함양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중학교 학생 시절에 필요한 미래인재로서의 역량 강화와 진로탐색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과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패러디만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강식에는 무안교육지원청 김관 교육장과 강진교육지원청 최광희 교육장이 참석하여 참가학생들에 대한 응원과 더불어 앞으로 진행될 R&E 창의융합 발표토론 프로그램을 함께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여 행사의 뜻을 더욱 높였다.

영광=서희권 기자

## 순천대 대학일자리센터, ‘영상 제작’ 온라인 홍보 눈길



순천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취업 잡(Job)고(Go) 서포터즈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홍보 동영상 활용하여 센터 주요 프로그램 및 청년지원정책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월 출범한 2021학년도 ‘취업 잡(Job)고(Go) 서포터즈단’은 코로나 19로 인한 온택트(on-tact) 문화에 맞추어 ▲대학일자리센터 소개 및 체험 영상 ▲청년고용지원정책 소개 영상

를 제작하였다.

기획에서 영상 촬영, 편집까지 서포터즈들이 전 과정을 도맡아 제작생, 졸업생, 지역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순천대 공식SNS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였다.

대학일자리센터 홍보 동영상은 청년들에게 익숙한 웹 예능 ‘워크맨’을 패러디한 브이로그 형식을 통해 대학일자리센터의 진로·취업 관련 시면

### 직접 제작, 홍보 영상 활용

점, 이미지 메이킹 등 주요 제공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의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대학일자리센터 홍보 영상 일부  
청년고용지원정책 홍보 동영상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되는 지자체의 청년고용정책 서비스를 안내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내일배움카드 ▲해외취업지원 등 구직활동 청년을 위한 주요 정책을 담았다.

한편, 재학생 12명으로 구성된 제4기 취업 잡(Job)고(Go) 서포터즈는 오는 12월까지 대학일자리센터의 홍보대사로서 진로·취업 프로그램과 청년고용정책 등 진로 설정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재학생과 지역 청년들에게 전달한다.

순천=김승호 기자

